벤처혁신연구 제5권 제2호(통권11호) http:www.kavi.or.kr
Journal of Venture Innovation, Vol.5. No.2, June 2022, pp.35-48

간접 경험 및 롤 모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장수진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경영학 박사)[1] 정병규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2]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어떤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자아성취동기, 간접경험, 롤모델, 사업가에 대한 인식, 실패부담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효한 데이터 399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25.0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 자아성취동기, 간접경험, 롤모델, 사업가에 대한 인식, 실패부담감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도 자아성취동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론형 창업강좌, 창업특강, 부모나 지인들의 창업 유무 등 간접경험과 롤모델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 중심어: 자아성취동기, 간접경험, 롤모델, 사업가에 대한 인식, 실패부담감, 창업의지

Ⅰ. 서 론

IMF 외환위기 극복의 선두주자였던 벤처창업의 열기가 20여년 만에 제2의 벤처·창업 붐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다. 2021년 창업한 기업은 142만개, 이중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등의 기술창업은 24만개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매일경제, 2022.5.27.). 지속적인 정부의 창업·벤처정책이 이러한 성과의 토대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코로나로 국내만을 대상으로 한 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앞으로는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에 초점을 맞춰 창업을 더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엔터테인먼트와 문화사업에서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한류의 힘을 확인했다. 이런 문화적 현상과 창업을 결부시켜 보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창업하고 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제까지 정부 주도로 물적·양적 지원을 끊임없이 지원하던 창업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자체에서 일어나는 창업 붐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창업 분야도 서비스업, 제조업 등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과 창업의지와 관련한 창업 실행에 있어 보다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전 세계적으로 방대하고 다양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환경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는 실정

1)제1저자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경영학 박사, sj7339@hanmail.net
2)교신저자: 경영학박사,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gljoseph@sungkyul.ac.kr
· 투고일: 2022-04-15 · 수정일: 2022-05-02 · 게재확정일: 2022-05-20

이다. 사회와 문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고대로부터 인간이 모여 살면서 이룬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모든 것들은 '문화'로 총칭되어 왔다. 따라서 문화적 특성과 창업의지와 관련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론으로만 채워진 창업강좌가 아닌 문화적 특성이 부가된 실질적인 창업 관련 강좌나 교육 프로그램, 창업동아리 활동과 창업한 부모나 지인 등에 대한 느낌과 그에 대해 보고 들은 실제 이야기 등을 포함하는 간접경험 등 실제 창업 경험을 해보기에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요소들이 산재한 상황에서 간접경험은 창업의지를 고취하고 발견해 내는데 매우 필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간접경험과도 일맥상통할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창업에 성공한 공인이나 연예인, 드라마 속 가상의 주인공 등을 통하여 성공적인 창업가의 모습을 투영하고 따라갈 수 있는 롤모델(role model)도 최근의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간접경험, 롤모델,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문화적 특성을 포함한 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첫째,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자아성취동기, 사업가에 대한 인식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개인적 특성, 사회적 특성, 환경적 특성 외에도 문화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간접경험, 롤모델이 창업의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셋째.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실패부담감 등 일부 창업에 대한 부정적일 수도 있을 시각에 대해서도 창업의지가 창업실행으로 바뀌는 데 필요한 요인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창업의지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은 창업을 계획된 행동(planned behavior) 관점에서 바라보고, 창업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창업의지를 전제 요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즉 창업에 있어서 의지의 요소를 가장 핵심으로 보았다. 창업의지에 대한 이론적 모델은 사회심리학자들이 제시한 의도적 행동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모델의 핵심은 의도 또는 태도가 행동을 예측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Fishbein and Aizen(1975)의 계획된 행동모델(Theory of Planned Behavior)이 대표적이다. 이 모델에 의하면 사람의 행동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닌 계획적이고, 이러한 계획된 행동을 유발하는 선행 변수는 바로 의지라고 보는 것이다. 선행 변수 의지 행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인지적 과정으로 보고있는 것이다. 심리학의 연구 분야에서 어떠한 계획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증명된 요인은 의지이다. 창업 관련 연구에서도 창업과 관련된 의지는 창업이라는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즉, 창업 관련 태도와 창업의지가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창업의지는 선행 변수(예를 들면 예비 창업자의 경험이나 태도 등)들이 창업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중간에 개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창업의지는 창업 과정을 이해하고 창업 행동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Krueger, 1993). 이러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크게 환경적 요소 측면과 개인적 요소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 특성 요인으로는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자율욕구, 통제 욕구, 통제 위치 같은 심리적 변수들이 있다, 환경 특성 요인은 다시 거시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는 정부 정책과 같은 제도적 조건, 경제적 조건, 기술 등이 있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남녀와 같은 인구통계학적인 변수, 창업가 부모의 영향, 창업 교육, 창업 경험, 사회적 네트워크, 역할모델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2.2 자아성취동기와 창업의지

자아실현욕구는 Maslow(1946)의 5단계 욕구이론 중의 하나로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스스로를 완성

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실현욕구는 성취욕구 내지 동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자아성취동기라 함은 자신이 이루고자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적인 욕구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 지식, 태도 등을 숙달하고 스스로 통제하기도 한다(Murray, 1938). McClelland(1961)는 인간의 성취욕구는 자신이 목표를 설정하여 획득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자아성취욕구가 높으면 높을수록 보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최고경영자들은 높은 성취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윤남수, 2012). 대체로 이러한 자아성취욕구 또는 동기가 높을수록 창업의지에 보다 긍적적인 영향 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김경은, 주병철(2018)의 연구에서도 자아성취욕구가 높으면 높을수록 창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Johnson(1990)은 자아성취욕구와 창업과 관련하여 다룬 23개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바 있다. 그 결과 20개의 연구에서 자아성취욕구와 창업의지 또는 창업행위간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조준희, 김찬중(2015)의 경우 자아성취욕구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정연우, 반성식(2008)은 청소년 대상으로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창업자의 성취욕구, 내적 통제, 자기효능감이 청소년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정용회, 하규수(2012)는 예비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요인과 창업의지와의 관계 연구에서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사업지향성, 자율지향성 등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2.3 간접경험과 창업의지

창업 간접경험은 대리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타인의 창업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 대리학습함으로써 향후 자신의 창업의지 형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Scherer et al., 1989). 이러한 창업 간접경험으로 이론형 창업강좌, 창업 특강, 주변 지인들의 창업 유무 등을 들 수 있다(김정곤 외, 2016).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창업관련 교육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은 본인이 직접 아직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더라도 타인의 경험을 통해 창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신윤철 외, 2007). 많은 경우 창업 교육을 통해 창업에 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Timmons, 1994). 현실에서 발생하는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먼저 경험하고 학습함으로서 실제 창업시 실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McGrath, 1999). 간접경험과 관련한 연구 중에 부모, 친인척의 창업 경험은 해당 개인의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Shapero and Sokol, 1982). 또한 창업을 한 경험이 있는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의 창업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onstadt, 1985; Scott and Twomey, 1988). 창업자로서 성공한 부모의 존재는 자녀 입장에서는 다양한 상호작용과 학습 과정을 통해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 창업에 성공한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자녀들 보다 창업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Scherer et al., 1989). 김성훈, 남정민(2016)의 연구에서도 창업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할 때 자녀의 창업의지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반면, 실패한 부모의 창업 경험은 오히려 청소년의 장래 창업의지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이재은 외, 2017). 지인의 창업 유무와 창업 동기에 관한 연구들에서 지인, 동료 등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청년 창업가의 창업 역량과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Bosma et al., 2011). 지인의 창업 성공과 본인의 창업의지간의 관계를 연구한 Buunk et al.(2007)에 의하면 지인의 창업 성공은 본인의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하면서 창업의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호(2015)는 창업자 주변의 성공과 실패가 창업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2.4 롤모델과 창업의지

Bandura(1986)는 관찰학습 또는 모델링, 즉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가치, 태도, 사고방식, 판단기준, 인지

능력, 행동 등에서 변화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Bandura(1986)의 모델링 개념은 직접경험을 통한 학습이나 단순 모방과 달리 자원, 시간 등에 제한되지 않으며 행동의 직접 수행과 강화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이제경 외(2009)는 대학생의 진로상담에서 필요한 도움을 알아보는 연구에서, 주로 자신에게 연관된 진로 및 직업 정보를 가장 필요로 했다. 단순한 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직무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에 대한 정보의 요구도 많았다. 대학생의 진로 결정에 대한 영향 요인을 연구한 임은미(2011)에 의하면 진로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역할모델 유무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정서적 친밀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고민에 의미 있는 역할모델은 매우 중요한 해결점이 되고 있다(임윤서, 2016). 여대생의 진로와 관련한 안진아(2008)의 연구에서도 롤모델이 있을 때 진로에 대한 포부 역시 높아졌다고 했다. 대학생의 창업의도를 연구한 이수지(2012)에 의하면 대학생의 창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도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롤모델이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롤모델과 창업의도간 관계를 연구한 서동철(2014 역시 롤모델과의 직접적 교류 또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창업 관련 자기효능감이 높아졌다. 창업 교육이나 창업 활동, 롤모델 노출 경험이 있는 경우, 또 창업과 관련된 조언이나 코칭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창업의지가 높아지므로, 각계 전문가를 멘토로 선정하여 아이디어를 실제 창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임지영 외, 2017).

2.5 사업가에 대한 인식과 창업의지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주변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받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된다. 육창환(2015)은 사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란 사업가를 바라보는 일반 대중과 언론의 긍정적·부정적 시각이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인 요인을 지칭한다고 하였다. 창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기업가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는 잠재적 창업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창업의지를 높인다고 하였다(김상수, 2018). 이홍장(2016)은 국가 유형에 따라 기업가 특성 및 창업환경과 관련된 변수들이 어떻게 신규창업 등록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한 결과,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신규창업 등록수에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다. 육창환(2015)은 창업가의 특성 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사회적 인식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대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양대현(2016)에 의하면 사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사회적 인식과 창업의지 관계 연구 결과는 혼재되어 있지만,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지원정책과 4차산업혁명 시대 영향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창업 및 기업가에 대한 인식에서 긍정적인 의식변화 등이 일어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2.6 실패부담감과 창업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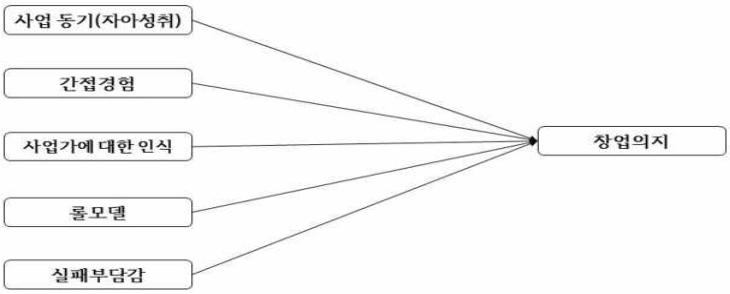
실패부담감은 실패에 따른 두려움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반응이다(Cacciotti and Hayton, 2015). Conroy and Elliot(2004)은 개인이 실패가 가져올 혐오적인 결과를 알기에 이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성향이라고 하였다. 실패에 대한 낙인은 창업 활동을 방해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실패의 낙인이 심각하게 높을 때 기업가들은 실패 가능성이 적은 프로젝트를 선호하게 된다고 하였다(Landier, 2005). 하규수(2012)는 우리나라는 사업실패에 대하여 가혹하여 실패한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으며, 창업기업이 실패하는 경우 창업가의 실패로 이어지고, 한번 실패한 창업가는 금융거래의 낙인에서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하였다.

대부분 창업의지에 대한 연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1차적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Wyrwich et al., 2016). 즉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 초기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데, 이는 궁극적으로는 창업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요소로 작용한다(Arenius and Minniti, 2005). 물론 이러한 실패부담감을 떨쳐내기 위해 긍정적인 동기 부여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Mitchell and Shepherd, 2011).

Ⅲ.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어떠한 영향 요인이 창업의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자아성취동기, 간접경험, 롤모델, 사업가에 대한 인식, 실패부담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설정된 본 연구의 모형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3.2 가설 설정

Leung et al.(2012), 정용회, 하규수(2012), 조준희, 김찬중(2015)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의지에 자아성취동기가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Bosma et al.(2011), 김성훈, 남정민(2016), 김정곤 외(2016)의 연구에 따르면 간접경험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Bandura(1986), 이수지(2012), 임지영 외(2017)의 연구에서 롤모델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Gnyawali and Fogel(1984), 육창환(2015), 김상수(2018)의 연구에서 사업가에 대한 인식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Wyrwich et al.(2016), 하규수(2012)의 연구에 의해 실패부담감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자아성취동기는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간접경험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사업가에 대한 인식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롤모델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실패부담감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조사 설계

설정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가설 검정을 위해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5월 30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유효한 399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통제변수를 제외한 모든 항목은 Likert 방식(5점 척도)으로 측정하였다. 설문지의 구성 및 조작적 정의는 아래 <표 1>과 같다. 응답자의 특성은 남성이 51.0%, 여성이 49.0%로 비슷하였다. 연령은 30대 10.5%, 40대 42.5%, 50대 29.5%, 60대 이상 15.0%였다. 학력은 고졸 22.0%, 전문대졸 39.0%, 대졸이 39.0%

였다. 업종은 서비스업 32.5%, 기타소매업 9.0%, 패션잡화 7.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항목

구분	변수명	문항수	조작적 정의
독립변수	자아성취동기	4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내 자기 계발, 자아실현, 목표 달성 등을 위해 창조적인 활동과 사고를 하는 것
	간접경험	4	실제 현실 속에서나 미디어를 통해 타인을 직간접적으로 관찰하고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대리적 경험의 총체
	사업가에 대한 인식	4	개인이 창업을 고려하는 데 있어 적극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
	롤모델	5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상적 기준에 부합하여 닮고 싶거나 비슷한 행동을 하고 싶게 만드는 긍정적인 사람
	실패부담감	5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인지적·정서적 반응으로써 불안과 걱정을 경험하는 성향
종속변수	창업의지	5	미래에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거나 시작하려는 의지 또는 열정

IV. 연구 결과

4.1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연구를 위한 통계 분석은 SPSS 25를 활용하였다. 먼저 측정 변수들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측정 변수에 대해 정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타당도 검정은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KMO 값은 .85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값은 유의확률 .000에서 5660.847로 나타났다. 설명된 총분산은 70.273%이었다. 이상의 모형 적합성 검정 결과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 분석의 요인적재치를 .6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모형과 동일하게 자아성취동기, 간접경험, 사업가에 대한 인식, 롤모델, 실패부담감 6개의 요인이 <표 2>와 같이 잘 묶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신뢰도 분석 역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Cronbach's α 테스트를 했다. 통상적으로 Cronbach's α 값이 .7 이상인 경우 신뢰도는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신뢰도 분석 결과 자아성취동기가 .884, 실패부담감이 .795로 나타났다. 롤모델은 .841, 간접경험은 .833, 사업가에 대한 인식은 .802, 창업의지는 .826으로 나타났다. 6개 요인 모두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준치 .7 이상이었다.

<표 2>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변수	01	02	03	04	05	06	회전제곱적재량 (누적%)	Cronbach's α
01 자아성취동기	JAS1	**.831**	.182	.144	-.167	.122	.071	13.416	.884
	JAS2	**.806**	.166	.240	-.119	.185	.117		
	JAS3	**.723**	.169	.246	.009	.091	.360		
	JAS4	**.702**	.112	.273	.004	.094	.266		
02 롤모델	SMD5	.086	**.749**	.081	-.063	.137	.017	26.453	.841
	SMD1	.058	**.744**	.184	-.058	.147	.191		
	SMD2	.123	**.743**	.030	.112	.167	.071		
	SMD3	.167	**.740**	.203	-.061	.126	.146		
	SMD4	.206	**.711**	.302	-.053	-.126	.051		

03 간접경험	GGH2	.209	.221	**.790**	-.009	.171	.237	38.201	.883
	GGH1	.272	.240	**.787**	.018	.155	.233		
	GGH3	.286	.277	**.752**	-.078	.179	.136		
	GGH4	.194	.132	**.662**	.238	.268	-.086		
04 실패부담감	SB1	-.175	-.122	.108	**.792**	-.060	.079	49.868	.795
	SB4	-.158	-.006	-.069	**.787**	-.138	-.157		
	SB2	.071	-.122	-.179	**.748**	.111	.221		
	SB3	-.110	.043	.150	**.702**	.077	-.162		
	SB5	.135	.099	.074	**.624**	-.227	-.254		
05 사업가에 대한 인식	SIIS2	.119	.118	.167	-.079	**.830**	-.002	60.603	.802
	SIIS1	-.010	.090	.160	.043	**.801**	.294		
	SIIS3	.102	.199	.062	-.150	**.713**	.091		
	SIIS4	.295	.063	.303	.031	**.634**	-.189		
06 창업의지	SUJ4	.423	.250	.094	.037	.121	**.742**	70.273	.826
	SUJ5	.179	.127	.205	-.163	.107	**.707**		
	SUJ3	.501	.225	.160	-.191	-.037	**.628**		

4.2 상관 관계 분석

판별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판별 타당성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독립 변수간 다중 공선성 발생 여부이다. 통상적으로 다중 공선성은 변수간 상관 관계가 .8 이상일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상관 관계가 .8 이상은 없었다. 실패부담감과 간접경험의 상관 관계가 -.043으로 가장 낮고 자아성취동기와 창업의지간 상관 관계가 .6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든 변인간 상관 관계는 실패부담감은 부(-)의 방향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변인들은 정(+)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표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평균	표준 편자	자아성취 동기	간접경험	사업가에 대한 인식	롤모델	실패부담감	창업의지
자아성취동기	3.688	.938	1					
간접경험	3.505	.972	.509**	1				
사업가에 대한 인식	3.678	.874	.420**	.478**	1			
롤모델	3.131	.921	.407**	.508**	.374**	1		
실패부담감	3.046	.877	-.245**	-.043	-.194**	-.134**	1	
창업의지	3.677	.904	.610**	.493**	.424**	.449**	-.249**	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4.3 인과 관계 검정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인과 관계 검정을 실시하였다. 인과 관계 검정을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 Regression An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모형의 설명력은 46.0%로 나타났다. F값은 66.928(P = .000)으로 나타났다. 회귀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립 변수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체

크하기 위한 VIF값 역시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립 변수간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이에 본 모형을 활용해서 가설을 검정하였고 가설 검정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아성취동기는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β = .398, p < .001). 따라서 H1. 자아성취동기는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간접경험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β = .158, p < .01). 따라서 H2. 간접경험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사업가에 대한 인식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β = .104, p < .05). 따라서 H3. 사업가에 대한 인식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롤모델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β = .154, p < .01). 따라서 H4. 롤모델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실패부담감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β = -.104, p < .01). 따라서 H5. 실패부담감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한편,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영향력의 크기는 자아성취동기, 간접경험, 롤모델, 사업가에 대한 인식 및 실패부담감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가설검정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VIF	결과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340	.232		5.766	.000		
자아성취동기	.347	.040	.398	8.667	.000	1.536	채택
간접경험	.147	.046	.158	3.215	.001	1.749	채택
사업가에 대한 인식	.108	.046	.104	2.352	.019	1.422	채택
롤모델	.151	.044	.154	3.473	.001	1.436	채택
실패부담감	-.107	.040	-.104	-2.663	.008	1.102	채택
R : .678, R^2 : .460 수정된 R^2 : 453 F값 : 66.928 (P=.000)							

4.4 논의

본 연구에서 자아성취동기, 간접경험, 롤모델, 사업가에 대한 인식은 창업의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패부담감은 창업의지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자아성취동기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간접경험, 롤모델, 사업가에 대한 인식 및 실패부담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성취동기는 창업의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정용회, 하규수(2012), 조준희, 김찬중(2015), 유봉호(2015)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McClelland(1961)는 자아성취욕구가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도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최고경영자들은 높은 성취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윤남수, 2012). 또한, 본 연구에서 자아성취동기가 가장 창업의지에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나타나 창업의지를 높이는 데 있어 자아성취동기를 고취하고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예측할 수 있다. 둘째, 간접경험은 창업의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Buunk et al.(2007), 이재호(2015), 김성훈, 남정민(2016)의 결과를 지지한다. 지인의 창업 유무와 창업 동기에 관한 연구들에서 지인, 동료 등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청년 창업가의 창업 역량과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osma et al., 2011). 따라서 창업과 관련된 교수나 교직원, 선배, 동기, 지인들의 창업과정에 관한 이야기, 조언, 코칭 등을 들으며 창업 과정을 이해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

면서 창업에 대한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셋째, 롤모델은 창업의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이수지(2012), 서동철(2014), 임지영 외(2017)의 결과를 지지한다. 긍정적인 모델링은 직접적인 실패 경험이 효능감을 약화시키는 것을 막아주고, 직접적인 실패에 반복 노출되더라도 재시도할 수 있도록 효능감을 강화한다(Weinberg et al., 1979). 따라서 성공적인 롤모델의 존재는 창업자의 창업의지와 창업실행을 유도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넷째, 사업가에 대한 인식은 창업의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육창환(2015), 이홍장(2016), 김상수(2018)의 결과를 지지한다. Gnyawali and Fogel(1994)은 창업 및 창업가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은 창업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며, 개인이 경력 선택으로서 창업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창업에 대한 사회의 유리한 태도와 창업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업가에 대한 인식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다섯째, 실패부담감은 창업의지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yrwich et al.(2016), 하규수(2012)의 결과를 지지한다. Arenius and Minniti(2005)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 초기 성공에 대한 기대를 저하시킴으로 창업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실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실패 자체 뿐만 아니라 실패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므로 창업의지 뿐만 아니라 창업실행 자체를 포기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사회, 문화적 특성 들 중에서 대표적인 요인으로 자아성취동기, 간접경험, 롤모델, 사업가에 대한 인식, 실패부담감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요인들 중에서 어떤 요인이 창업의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399개의 유효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25.0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 자아성취동기, 간접경험, 롤모델, 사업가에 대한 인식은 창업의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실패부담감은 창업의지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독립 변수중 자아성취동기가 창업의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현재 제2의 벤처창업 붐이 일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벤처·창업 붐을 이어가기 위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적 특성을 가진 요인들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5.1 시사점

본 연구의 학술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실증 분석한 결과, 자아성취동기, 간접경험, 롤모델, 사업가에 대한 인식, 실패부담감 모두 창업의지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둘째,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특히 문화적 특성을 보다 강조한 간접경험, 롤모델과 창업의지의 영향관계를 확인한 것이다. 셋째,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사회과학 분야 외에도 문화예술의 분야와 접목한 것이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의지를 고취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영향이 큰 것으로 자아성취동기가 나타난 것이다. 둘째, 기존 창업의지 관련 정책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이 창업의지를 가졌거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점에서 아직 창업의지가 없거나 생각지 않았던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창업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점이다. 셋째,

직접 창업 경험보다도 적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밀접한 네트워크에 의해 간접경험, 즉 이론형 창업 교육 및 강좌, 창업 동아리, 부모나 지인 등의 창업 경험 등과 창업에 성공한 롤모델의 유무로도 창업의지를 고취하여 창업실행을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한 점이다.

5.2 연구한계 및 향후 방향

첫째, 문화적 특성을 지닌 간접경험이나 롤모델의 경우 보다 세분화된 접근과 방향성이 필요하다. 문화적 특성과 창업의지간의 영향 관계에 관한 국내 연구가 미흡한 실정에서, 더욱 세분화되고 다양한 문화적 특성 요인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일반인 중에서도 다양한 직업군에 대하여 세분화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연구 결과로 활용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직업군이나 연령별 구분을 세분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비대면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로, 일상으로의 복귀와 문화적 특성이 밀접하게 연결되는 현 시점에서 문화콘텐츠와 관련한 보다 다양한 문화적 특성 변수를 찾을 필요가 있다.

REFERENCE

김경은, 주병철(2018), “청년창업자의 동기요인이 창업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31(5), 1621-1640.

김상수(2018), *고학력 베이비붐 세대에게 사회적지지가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기업가정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김성훈, 남정민(2016),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현황 및 인식 연구: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을 중심으로 현황 및 인식 비교분석,” *벤처창업연구*, 11(6), 175-183.

김정곤, 나승권, 장종문, 이성희, 노수연(2016),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KIEP연구보고서*, 16(15), 1-65.

매일경제, “제2의 벤처창업붐, 일관된 정부 정책으로부터,” 2022. 5. 27.

서동철(2014), *대학생의 롤모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신윤철, 은태욱, 이용진, 김진수(2007), “공업고 BizCool 운영에 대한 담당 교사와 학생의 인식,” *대한공업교육학회지*, 32(2), 103-131.

안진아(2008), *역할모델 및 다중역할계획에 대한 태도와 진로 포부의 관계: 여대생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양대현(2016), *대기업 근로자의 조기퇴직과 창업의도와의 관계 연구: 가족의 지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유봉호(2015), “성취욕구와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동기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0(3). 51-60.

육창환(2015), *창업가의 특성 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멘토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윤남수(2012),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동기요인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산업경제연구*, 25(2), 1537-1557.

이수지(2012), *창업참여도가 메시지 평가와 자기효능감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년 대학생의 롤모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이재은, 강지원, 김춘광(2017),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관계적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32(3), 193-214.

이재호(2015), “창업생태계의 국제간 비교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창업활성화 방안,”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57-89.

이제경, 문승규, 김현진, 염미영(2009), “대학에서의 학사경고 예방을 위한 대학적응 및 경력설계 프로그램 개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연구프로젝트보고서*.

이홍장(2016), *창업환경과 기업가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혁신, 효율, 요소 주도형 국가별 차이 분석,*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임윤서(2016), “대학생의 진로 선택을 위한 역할모델의 우연 경험 연구: 청년기업가의 경력성공과정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4(2), 329-363.

임은미(2011),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과 개입요인 탐색,” *상담학연구*, 12(2), 447-466.

임지영, 김근면, 고국진(2017), “간호대학생의 기업가정신, 성격특성, 창업교육 요구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데이터분석학회지*, 19(6), 3361-3377.

정연우, 반성식(2008), “청소년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3(1), 45-67.

정용회, 하규수(2012), “예비창업자 개인적 특성 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예비창업자 경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유통경영학회*, 15(4), 41-53.

조준희, 김찬중(2015),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교육과 창업참여의 조절효과,” *인적자원개발연구*, 18(4), 53-75.

하규수(2012), “사업에 대한 태도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연구,* 19(5), .59-74.

Arenius, P. and M. Minniti(2005), “Perceptual Variables and Nascent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24(3), 233-247.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Bosma, N., J. Hessels, V. Schutjens, and M. V. Prag(2011), “Entrepreneurship and Role Model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3(2), 410-424.

Buunk, A. P., J. M. Peiró, and C. Griffioen(2007), “A Positive Role Model May Stimulate Career Orient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7(7), 1489-1500.

Cacciotti, G. and J. Hayton(2015), “Fear and Entrepreneurship: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s*, 17(2), 165-190.

Conroy, D. E. and A. J. Elliot(2004), “Fear of Failure and Achivement Goals in Sport: Addressing the Issue of the Chicken and the Egg,” *Anxiety, Press, and Coping*, 17(3), 271-285.

Fishbein, M. and I. Aizen(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Gnyawali, D. R. and D. S. Fogel(1994), “Environments for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Key Dimensions and Research Implica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43-62.

Johnson, B. R. (1990), “Toward a Multidimensional Model of Entrepreneurship: The Case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the Entrepreneu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4(3), 39-54.

Krueger, N. F. (1993), “The Impact of Prior Entrepreneurial Exposure on Perceptions of New Ventur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Entreprenership Theary and Practice*, 18(1), 5-21.

Landier, A. (2005), “*Entrepreneurship and the Stigma of Failure*,” Available at SSRN 850446.

Leung, K. Y., C. T. Lo, H. Sun and K. F. Wong(2012), "Factors Influencing Engineering Student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On-campus Entrepreneurial Activities," *Journal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15, 1-19.

Maslow, A. H. (1946), "Problem-centering vs. Means-centering in Science," *Philosophy of Science*, 13(4), 326-331.

McClelland, D. C. (1961), *The Achieving Society*, Princeton, NJ: Van Nostrand.

McGrath, R. G. (1999), "Falling Forward: Real Options Reasoning and Entrepreneurial Failur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1), 13-30.

Mitchel, J. R. and D. A. Shepherd(2011), "Afraid of Opportunity: The Effects of Fear of Failure on Entrepreneurial Action,"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31(6), 195-209.

Murray, H. A. (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NY: Oxford University Press.

Ronstadt, R. (1985), "The Educated Entrepreneurs: A New Era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is Beginning,"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0(1), 7-23.

Scott, M. G. and D. F. Twomey(1988), "The Long-term Supply of Entrepreneurs: Student's Career Aspiration in Relation to Entrepreneurship,"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6(4), 5-13.

Shapero, A. and L. Sokol(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In Kent, C. A., D. L. Sexton and K. H. Vesper(Eds.), *Encyl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Scherer, R. F., J. S. Adams, S. S. Carley and F. A. Wiebe(1989), "Role Model Performance Effects on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Career Preferenc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3(3), 53-72.

Timmons, J. A. (1994),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Sydney: Irwin.

Weinberg, R., D. Gould and A. Jackson(1979), "Expectations and Performance; An Empirical Test of Bandura's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port Psychology*, 1(4), 320-331.

Wyrwich, M., M. Stuetzer and R. Sternberg(2016), "Entrepreneurial Role Model, Fear of Failure, and Institutional Approval of Entrepreneurship: A Tale of Two Regions," *Small Business Economics*, 46(3), 467-492.

Influence of Indirect Experiences and Role Model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Chang, Soo-jin[1)]
Chung, Byoung-gyu[2)]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empirically analyze which factors have the greatest influence. To this end, self-achievement motivation, indirect experience, role model, awareness of entrepreneurs, and fear of business failure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as factors influenc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order to empirically analyze this, 399 valid samples for the general public were analyzed. SPSS 25.0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self-achievement motivation, indirect experience, role model, awareness of entrepreneurs, and fear of business failure all had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self-achievement motivation had the greatest influence among the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It is significant in that indirect experiences and role models such as theoretical entrepreneurship lectures, special entrepreneurship lectures, and parents or acquaintances influence entrepreneurial intention.

Keyword: self-achievement motivation, indirect experience, role model, awareness of entrepreneurs, fear of business failure, entrepreneurial intention

1)First Author, Ph. D in Business Administration, sj7339@hanmail.net
2)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of Sungkyul University, gljoseph@sungkyul.ac.kr

저 자 소 개

■ 장 수 진(Chang, Soo-jin)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경영학 박사
<관심분야> : 문화벤처, 문화컨텐츠 창업, 공연예술 교육 및 문화마케팅 등

교 신 저 자 소 개

■ 정 병 규(Chung, Byoung-gyu)
■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경영학 박사, 경영지도사, 창업보육 전문매니저,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 빅데이터 전문가 1급, SNS 마케팅전문가 1급, 진로 적성 상담사 1급, 진로 직업 상담사 1급, 창업상권 분석지도사 1급 등
■ NIPA, IITP,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4차산업관련 평가위원
저서 : <메타버스를 타다, 2021>, <한방에 통과하는 논문 쓰기, 2021>, <2022 이기적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입문서, 2022> 등
<관심분야> : ICT전략 및 마케팅, AR/VR 및 Metaverse, Bigdata, 4차산업 비즈니스 모델 등